
碩士學位論文

戰後 韓國小說의 主人公에 관한 研究

- 性格과 意志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昌 乾

1986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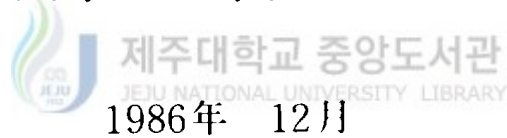
戰後 韓國小說의 主人公에 관한 研究

- 性格과 意志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永 和

金 昌 乾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金昌乾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梁 亨 海 
委 員 金 永 和 
委 員 金 炳 澤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6年 12月

THE STUDY ON HEROES IN KOREAN
POST -WAR NOVELS

Kim Chang-G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6. 12

目 次

I. 序 言	1
II. 時代的 背景과 戰後 韓國小說의 一般的 樣相	5
1. 時代的 背景	5
2. 戰後 韓國小說의 一般的 樣相	6
III. 戰後 韓國小說의 主人公	10
1. 主人公의 性格	11
1) 人間存在의 悲劇性	12
2) 無氣力한 虛無主義者	15
3) 人間存在의 孤獨	18
4) 敗北와 自己欺瞞	20
5) 反抗과 挫折	22
6) 肯定的 휴머니즘	25
2. 主人公의 意志	26
1) 肯定的 意志	26
2) 否定的 意志	27
IV. 戰後 韓國小說의 小說史的 意義	29
V. 結 語	31
參考文獻	33
텍스트로 인용한 作品	35
Summary	36

I. 序 言

소설은 결국 개인의 운명을 표현하되 그 개개인의 행위와 사건, 개인의 기쁨과 고통을 敘事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의 본질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소설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체계와 기구의 특질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그 방법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주동적인 관계, 개인의 운명이라는 형식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특히 소설문학은 그 시대 현실의 가장 압투데이트(up-to-date)한 명제와의 긴밀한 대결 속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윤리적 이슈를 반영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

6·25전란은 동족 상잔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거치면서 시대 정신을 새롭게 재편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말하자면 국토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 체계를 요구하며 인간성의 변모를 강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후 소설은 민족의 분열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자아의 분열된 상태를 동시에 극복하고 통일시켜야 하는 그런 특수한 역사적 위치에 놓여진 것임을 인식해야 했던 것이기에 한국 문학에 있어서 6·25전란은 일대 전환기의 의의를 지녔다 하겠다.

그러한 6·25전란을 정점으로 하는 소위 戰後 韓國小說이 당시의 혼란과 충격을 어떻게 소화 반영시키고 있는가. 이념형이란 어떤 것이며 창조적 인간상의 에스프레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신문학 70년사에서 전후소설이 차지할 적당한 位相을 발견하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매김이도 할 것이다.

白鐵은 전후 한국문학을 전시 문학과 문단 결실기로 구분하고 전후 한국소설의 중요한 특징을 후자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²⁾

金東里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³⁾ 전후 한국소설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시기를 종군 문단기와 문단 결실기로 보고 있다. 이는 白鐵의 시대 구분과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이 삼 년이 지나고 나서 전후문학은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金東里

1) 白鐵: 「文學概論」, 新丘文化社, 1958, p. 263.

2) 白鐵: “가난한대로의 우리 遺産”, 思想界, 1962年 6月號, pp. 294~295.

3) 金東里: “文壇 10年の 概觀”, 聯合新聞, 1959年 8月 15日字.

여기서 그는 전후문학을 제 1기: 左右鬪爭期(1945~1948), 제 2기: 文壇整理期(1948~1950), 제 3기: 從軍文壇期(1950~1953), 제 4기: 文壇結實期(1953~現在)로 구분했다.

가 말한 '現在'란 1958년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현재'란 4·19혁명이 일어난 1960년까지 연장해 볼 수 있는 시기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시대는 '신세대(새세대)'⁴⁾들이 등장한 金東리가 말하는 문단 결실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白鐵은 「戰後 15年の 韓國小說」에서 그 특징을 간추린 바 i) 기성의 모랄에 대한 반항의식으로서의 문학관, ii) 암흑세계로 표현되는 작품세계, iii) 작품에 있어서 상징법, 의식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통하여 전후 한국소설의 전모를 밝히려 하고 있다.⁵⁾

朴東奎는 「韓國 戰後小說 研究」에서 물간교수와 그의 팀들이 제시한 현대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20세기 소설의 변모를 구조적 특징을 주로 하여 기술하고 있다.⁶⁾

李洵植은 「戰後 韓國小說과 時間性的 冒險」에서 시간성의 변화와 그 기법을 말하고 있다. 짧고 한정된 시간에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성의 변형에 따라 기법의 모험도 불가피하여 '의식의 흐름'의 수법, '플래시 백'의 수법, '오버랩'의 수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였다.⁷⁾

金允植은 「젊은 시대의 文學」에서 전후 한국소설을 세 갈래의 형태로 구분하여 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체험의 문학이며, 둘째는 전쟁의 비정속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 갔는가에 대한 증언의 문학이며, 셋째는 비탈에 선 전쟁을 겪은 젊은이가 현실에 돌아왔을 때 그 상처로 인해 어떻게 패배하고, 혹은 극복해 나갔는가라는 치유의 문학이라고 했다.⁸⁾

鄭漢淑은 「戰後 韓國小說의 樣相」에서 특히 주제와 관련하여 i) 절대 순수의 상실, ii) 인간의 파멸, iii) 사회사적 접근, iv) 역사의식의 접근 등으로 분류 검토하고 있다.⁹⁾

尹炳魯는 「50年代 作家의 文學的 特徵」에서 50년대 후반의 작가군이 이룩한 문학적 특징을 i) 혼돈한 인정질은 노스텔지어, ii) 상황 속의 인간 조건을 탐구, iii) 사회적 부조리를 우화적으로 형상화, iv) 인텔리, 소시민의 현실을 묘파, v)

4) 해방 후 특히 전후에 나온 젊은 작가들은 해방 이전에 나온 작가들과 구분하여 자기들을 「新世代」, 「새세대」라 불렀다. 「現代文學」, 1956年 7月號 참조.

5) 白鐵: 「戰後 15年の 韓國小說」, 「韓國戰後問題作品集」, 新丘文化社, 1964, pp. 375~383 참조.

6) 朴東奎: 「戰後韓國小說 研究」, 「文化批評」, 제 1권 제 3호, 아한학회, 1967, p. 61.

7) 李洵植: 「戰後韓國小說과 時間性的 冒險」, 「現代文學」, 186號, 1970, p. 375.

8) 金允植: 「韓國文學의 理論」, 一志社, 1974, pp. 115~133 참조.

9) 鄭漢淑: 「現代韓國小說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77, pp. 152~204 참조.

현실 부조리를 사실화 등으로 나눔으로써 다양한 문학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⁰⁾

金炳翼은 「6·25와 韓國小說의 觀點」에서 특히 6·25소설들을 i) 전통적 감수성, ii) 자아의 각성, iii) 사회사적 접근, iv) 역사의식의 접근 등으로 분류 검토했다.¹¹⁾

具仲書는 「解放後 文學史를 위한 概觀」에서 전쟁을 수용한 작가들의 성격을 밝히면서 작품의 후방성과 적대방에 대한 관용과 동포애의 표현이라고 했다.¹²⁾

辛卿得은 「韓國 戰後小說 研究」에서 신세대의 소설을 중심으로 i) 전후 상황과 신세대 소설, ii) 전후소설의 심층심리 분석, iii) 소설과 사회와의 관계, iv) 공동사회와 망향의식 등을 전통적인 연구방법과 심리학, 사회학적 해명을 병존시켜 전후 한국소설의 전모를 분석 고찰하고 있다.¹³⁾

이밖에도 전후소설과 관계되는 작품론, 작가론 등이 「現代文學」, 「文學思想」, 「創作과 批評」, 「文學과 知性」등의 많은 잡지류에 散見되며, 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이 모든 작가, 작품론들은 대개가 일반적 개관이거나 단편적, 부분적 이론의 전개로 그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후 한국소설을 심층 분석하여 등장 인물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몇 편을 텍스트로 하여 부분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 속에서 행동의 주체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작가의 의식 아래에서 현상 그대로의 인물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계획 아래에서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의 인물, 특히 주인공(Protagonist)은 스토리 전개라는 단순한 기법상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주체인 것이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성격, 행동의 형태는 곧 작가 자신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해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 그 상황(현실)에 대한 자신이 관점을 피력하거나 증언하고 또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형태 혹은 방식은 작가의 기질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것은 물론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론을 바탕으로 어떤 공통된 시대 상황 아래에서 반사되어지는 주인공의 성격, 행동, 나아가서는 상황에 반응하는 작가의식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10) 尹炳魯 : 「韓國現代小說의 探究」, 汎支社, 1980, pp. 115~183 참조.

11) 金炳翼 : 「6·25와 韓國小說의 觀點」, 「現代社(季刊)」, 創刊號, 1980, p. 224.

12) 具仲書 : 「分斷時代의 文學」, 전예원, 1981, p. 329.

13) 辛卿得 : 「韓國戰後小說研究」, 一志社, 1983, pp. 69~175 참조.

이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대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제한하려고 한다.

첫째, 8·15이후의 혼란된 사회, 6·25전란, 그에 따른 폐허, 인간 상실, 불안의식, 현대 문명 등의 상황 아래에서 작가는 어떠한 문학적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이러한 의문은 결국 작품 속의 주인공을 분석하는 데서 그 해명의 열쇠가 준비될 것이다.

둘째, 어떤 자극(Stimulus)을 받은 개인이 그것에 어떠한 반응(Response)을 나타내는가의 문제다. 이것은 결국 개인과 사회(현실)간의 함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전후 한국소설에서의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은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리라 믿는다.

셋째, 본고의 전개에 따라 그 대상 작가나 작품도 자연스럽게 한정되어진다. 즉 전후 신세대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작품 중에서 당시의 현실과 밀착되어 거기에 관심을 쏟은 문제작을 작가에 따라 몇 편씩 임의로 선택했다.

넷째, 상황과 인물(개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전후 세계 문예사조에 영향을 끼친 실존주의 철학의 이론을 다소 인용했다.



II. 時代的 背景과 戰後 韓國小說의 一般的 樣相

1. 時代的 背景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맞이한 8·15해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황을 몰고 왔다. 즉 8·15이후부터 시작된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대구를 중심한 10월사건에 잇달아, 여수 반란사건, 제주도 4·3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그 극점에 6·25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소련군과 중공군이 개입되고 UN군이 참전하게 되어 한국전쟁은 축소된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 문학이 부산으로부터 상경하여 수복문학(일종의 전후문학)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전후가 된다.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했던 종군문학과 피난문학은 전중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1955년에 창간된 「現代文學」誌의 출현과 함께 한국적인 일종의 전후문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1953년 이후 몇 년 사이에 굶진한 문학 단체들이 발족하고, 「思想界」, 「現代文學」 등 50~60년대 문단과 지식층을 지배하는 잡지들이 간행되고, 각종 문학상이 제정되고 문학전집과 문고판이 속속 출판되기 시작했다.¹⁴⁾

이 무렵 대표적인 발표 기관은 「東亞」, 「聯合」 등의 10여개의 일간지와 「文學藝術」(1954), 「自由文學」(1956), 「現代公論」(1956) 등의 각종 잡지의 발간과 아울러 출판사를 통해서 국내의 소설류가 활발히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복문학 당시의 작가 중에는 월북, 납치, 학살 등으로 참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서 밝혀진 결과는 실로 끔찍했다. 春園 李光洙, 岸曙 金億, 懷月 朴英熙, 巴人 金東煥, 聽川 金符燮 등 한국 新文學의 長老급 大家 5명이 납치되고 20代 新人 洪九範, 李鍾山, 金聖林은 피납 도중 학살 되었으며, 李海文은 북괴군에게 총살되었고, 金永郎은 入京하는 국군을 맞아 너무 일찍 거리에 나왔다가 流彈을 맞아 생명을 잃었으며……중략…….

赤治中 林和와 어울린 鄭芝溶, 金起林은 敗退하는 북괴군을 따라 北으로 他意半으로 넘어갔고 吳泳鎮, 趙芝薰은 진격하는 국군을 따라 北進, 평양에서 “北韓文學”을 조직 文人들을 수습했다.¹⁵⁾

14) 金柄翼: 「韓國文壇史」, 一志社, 1973, p. 212.

15) 上揭書: p. 213.

이상과 같은 혹독한 전쟁의 시련과 피해 속에서 우리 문단의 정황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문학 활동을 거의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종전 뒤의 전후 문학이 아니라 휴전 뒤의 전중문학이 사실상 그대로 지속되는 양상이었다.

50년대의 한국 사회가 아무리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였다고는 할지라도 이 삼 년이 지나면서 전후의 안정상태가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몇 가지의 문학 전문지의 출현과 작가들의 활동량이 증가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후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한국문학은 신문학 초창기의 소수 인사를 비롯하여 30년대, 40년대 출신 작가와 일제 암흑기에 침묵했던 작가들은 물론 수 년간 신인들의 배출의 기회를 잃고 있던 문단에 탁월한 신인들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신·구세대간의 활발한 문학활동이 다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인들(신세대)의 활동이 두드러져 전후 한국문학의 특질을 신·구 세대가 공동으로 이루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신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戰後 韓國小說의 一般의 樣相

현대소설의 일반적 특질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문학이라는 점이다. 작가가 외적 현실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따로이 자기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 의식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에서 온 것이요, 또 허위와 거짓으로 차있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하여 20세기 문학은 그 불행의식의 한 줄기 싹을 찾아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소설이 가지는 일반적 특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객관적 현실에서 의식의 세계로 전환, 곧 인간이 현실 묘사에 열중하던 작가의 눈이 내부세계로 돌려진 셈이다. 바꾸어말하면 리얼리즘 경향에서 심리주의 경향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둘째, 주관주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 또는 불행한 현대 의식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묘사라기보다는 대체로 작가 자신이 주관적인 의식의 세계를 추구한 점이다. 즉 의식의 흐름의 수법으로 발전한 점이다.

셋째, 본질, 존재, 영원성에 대한 추구 — 이것은 서구의 조이스, 울프, 카프카, 까뮈 등의 작품세계에서 모두 이 영원성, 곧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특질이다. 특히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울프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소위 인간 의식의 순수 특질이 본질 위에서 그것을 공간적인 데서 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의식의 흐름을 단순히 과거에 향한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견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은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영원과 통하게 되는 것이다.

네째, 현대소설이 근대소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질은 보다 철학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 세계의 본체에 관한 것, 그리고 근원적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그 문학은 철학적(思惟的)인 것으로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테크닉으로 본 현대소설의 공통된 특질은 이상과 같이 내용적인 세계가 바뀔 때 따라 그 문학적 수법도 근대적 직접묘사에서 벗어나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암유나 상징, 또는 알레고리, 전설의 형식을 빌리게 되고 이런 기호에 의한 재현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인 언어의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내부적인 세계, 현대 생활에서 오는 복잡한 감각, 심리적 체험세계에 대하여 이중 삼중의 입체적인 중복된 뜻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어가 지니는 여러가지 전달의 특질을 동시에 활용하는 효과를 거둬야 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문학이 일반적으로 난해한 것도 이런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50년대 문학을 양분할 때 그 후반기에¹⁶⁾ 해당하는 시기는 주로 전후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쟁에 대한 반성적인 작품 소화의 과정이다. '신세대'로 불리워진 당시의 젊은 작가들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휴머니스틱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신세대'의 특질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반항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성의 모든 가치에 반항하는 동시에, 기성 문학의 모든 작품 조건에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문학적으로 지향한 곳은 주로 서구적인 것이다. 조이스, 카프카, 엘리엇 등이 젊은 작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 서구로 향한 또 하나의 방향은 실존주의적인 것이다. 실제로 사르트르, 까뮈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작품상에도 그 영향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런 문예사조와 조건을 연결시킨 배경은 역시 전란뒤에 온 전후의 사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그 작품들의 특질을 살펴보면 먼저 작품 세계가 대체로 암흑 세계란 데에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자연주의 문학과 같이 현실의 어두운 구석을 묘사한 것

16) 白鐵: 「韓國文學의 理論」, 正音社, 1964. p. 230

여기서 그는 50년대 문학을 양분하면 <戰時文學(戰爭文學)>가 <戰後文學>을 나누고 있다. 즉 1950~1954년의 前半期, 1955년~1959년이 後半期에 속한다.

이 아니라 그 현실 전체가 어두운 세계로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후의 현실이 젊은 작가들의 반성위에서 역으로 투사된 영상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전후의 현실은 불안의 시대요, 상실의 시대요, 불신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전란 때문에 그것이 불신 시대인 것은 아니었다. 현대 그 자체가 하나의 불안 시대로서 유럽의 지식인적 현실관과 상응하는 현실의식인 것이다.

이런 시대에 대하여 작가들은 여러 각도로 반응을 나타내었다.

첫째, 반항의식을 그대로 부패·부정·허위의 현실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대치한 예이다. 金聲翰의 <暗夜行>, <바비도>, 鮮于輝의 <테러리스트>, <挑戰> 등 시뉘에이션에 액센트를 준 행동의 문학, 吳尙源의 <龜裂>, <謀反> 외에도 실존주의적인 행동성을 강조한 작품들이 그것이다.

둘째, 직접 현실에 대한 반항적 행동이 아닌 대신에 부정, 불신의 태도를 그 인물들에게 반영시킨 작품들이다. 孫昌涉의 <血書>, <未解決의 章>, <雪中行> 등의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도 다시 다수 작가들에게서 이 부정형의 작품은 많다. 이것은 일종의 '로스트·제너레이션'의 문학과 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어두운 현실, 실의의 인물, 패배감, 무기력, 피로, 실망, 허무의식, 방향도 의지도 없는 순간적인 惰性的인 생활감, 그래서 이런 실의, 부정의 문학에는 역시 예의 시뉘에이션의 실존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실존주의가 50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은 꽤 광범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張龍鶴의 <復活未遂>, <요한詩集>, <非人誕生> 등이 대표적이다. 그것들은 불신의 현실, 거성의 모든 사회 조건에 대하여 거부의 태도를 취한 것이지만 그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과 현상으로 인간을 우선 절망의 조건에 두어보고 나아가서 거기서 구원된 어떤 것을 향수하는 일 그리고 작품 조건으로 모든 것을 의식화하고 현실을 변형시켜서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세째로, 현대를 메카니즘의 문명으로 보고 거기서 오는 인간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金光植의 <二一三號 住宅>, <椅子の 風景>, 金東立의 <大衆管理> 등이 그것이다.

네째로, 현실에 대한 부정의 작가들의 작품 경향에서 풍자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50년대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으나 특히 金聲翰, 張龍鶴, 孫昌涉, 吳尙源 등의 작품들, 柳周鉉의 <張氏一家>, 全光鏞의 <G. M. C>, 李浩哲의 <破裂口> 등이 있다.

다음 작품 수법면에서의 특질은 한마디로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세계로서의 우화, 신화, 전설의 형식을 빌리고 용어에서도 자연 직유, 암유, 역설

등의 언어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의 작품으로 金聲翰의 <개구리(제우스의 자살)>, <五分間> 등과 張龍鶴의 여러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崔仁勳의 작품 <GREY 俱樂部顛末記>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위 '의식의 흐름'을 하나의 수법으로 활용한 것이 특색이다. 많은 작품에서 그들이 의식하든 않든, 또 전적으로 그것을 쓰든, 부분적인 데서 試用하든 간에 태반이 그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⁷⁾



17) 白鐵：“戰後 15年の 韓國小説”，「韓國戰後問題作品集」，新丘文化社，1963，참조.

III. 戰後 韓國小說의 主人公

<神의 죽음>을 외치던 19세기를 지나 <人間의 죽음>을 외치는 20세기이다. 과연 <人間은 죽었는가?> — 이렇게 <물음>이 바뀐 것이다.

現代는 理想的 前提나 일정한 새로운 모랄도 없다. 있다면 혼돈과 不安이요, 人間破壞를 촉진하는 現代文明이라는 狀況이다. 세계는 암흑세계이고 그야말로 <모랄의 荒蕪地>인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2 차대전은 종전되자 <현대의 새로운 영웅>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앵그리·영·맨>, 미국의 <비이트·제너레이션>¹⁸⁾이 그것이다. 그들은 기성사회의 모든 것에 대하여 反抗한다. 既存의 낡은 秩序, 制度에 대하여 그들은 順應 대신 反逆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局外者(out-sider)>¹⁹⁾로서 사회에 어떠한 호의도 干與도 보이지 않으며 다만 <성난 얼굴>²⁰⁾로 <路上에서>²¹⁾ <怒號>²²⁾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전후에는 과연 어떠한 인간군이 나타났을까?

역사적 현실에 대해 인간 창조적 충동의 시험적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진전과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결국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충동의 결과라 할 것이다. 1950년대의 한국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 충동이 종전까지 보아왔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가 가지는 일반적이 구조 즉 사상적인 변화에도 그 변질의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6·25전란의 참혹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던 탓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대」라는 공통적 상황에서 6·25전란이라는 한국적 특수 상황을 보인 것이 소위 50년대의 문학적 상황이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은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 전후 한국소설의 인물들을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소설이란, 증거에다 x를 플러스하거나 x를 마이너스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²³⁾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x란 <未知量>이 작가의 기질이라고 했다. 이 말은 역사상(증거)의 인물과 소설상의 인물을 구별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 이 말

18) 世界戰後問題作品集 英國, 美國篇 참조.

19) Colin Wilson의 著書, 1956, 英國.

20) John Osborn의 회곡작품. "Look back in Anfer". 1953, 英國.

21) Jack Kerouac의 小說 "On the road", 1957, 美國.

22) Allen Ginsberg의 長詩, "Howl".

23) E. M. Foster; "Aspects of the Novel", 鄭炳祖譯, 新揚社, 1964, p. 52.

은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든 소설(또는 그 인물)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후의 한국의 인물들도 모두 그 때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 직접 간접으로 핏줄을 잇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 까닭에 그 사회가 복잡한 만큼이나 그 인간형도 갖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郭鍾元은 소설의 작중 인물을 고찰하는 데 있어 <현실 추종의 인간상>과 <이상형의 인간상>으로 나누고 작가는 마땅히 <이상형의 인간>으로서의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⁴⁾

그러나 이 방법은 순수한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연역적인 것이고, 여기서의 필자는 현상 그대로의 인물들을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류해 보고자 한다. '現實追從의 人間'이라 하여(그 작가의 의도는) 반드시 '현실 추종'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문제는 작가의 기질에 달린 것이며 또 '인간의 전형'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또한 한 시대 특히 복잡한 시대 상황 아래에서 그 전형이 단 하나만이 되라는 원칙은 없는 것이므로 필자는 전후의 모든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대로 하나의 전형들이라고 보고 싶다. 물론 그것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전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유형 의식에 따르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으며 또 인물 성격의(작중에서의) 부단한 변화에 유의해야 되겠다. 현대소설의 인물의 한 특징이 立體的이라는 것을 상기해야겠다.²⁵⁾ 알다시피 인간심리는 복잡 미묘한 것이며, 또한 인간은 원래 多面體가 아니었던가?

이런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볼 때 平面的 人物에만 통할 이런 식의 인물 유형화는 그 자체가 오류일지도 모른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인공은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성격, 의식구조, 행동, 그 의지까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主人公의 性格

전후의 한국소설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주인공들은 대개 몇 가지 공통적인 성격

24) 郭鍾元; "小説의 作中人物考", 「藝術論文集」2, 藝術院, 1963, p. 124.

25) E. M. Foster; "Aspects of the Novel"-여기서 그는 소설의 인물을 平面的 人物(Falt-Characters)과 立體的 人物(Round-Characters)로 나누고 立體的 人物을 近代의 人物이라 했다.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성격은 전쟁, 암담한 현실이라는 한국적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구조에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하는 것이어서 대개의 경우 한 인물은 여러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공의 그러한 성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이며, 그 결과 어떠한 실제 성격을 나타내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1) 人間存在의 悲劇性

전후의 많은 소설들은 물론 공통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아니다. 張龍鶴의 <요한詩集>, 孫昌涉의 <血書>, 徐基源의 <暗射地圖>, 李範宣의 <誤發彈>, 金聲翰의 <五分間> 등 모두가 다른 국면(Situation)에 작가는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6·25전란이전 작품에서 느낄 수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에 대한 절대적 절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이 너무나도 상상을 넘는 압박에서 허덕이는 한 가련한 인간의 사설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사상의 평면적 보급의 영향에서 우러나온 비극은 아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에 젖어 들게 된 감각적이며, 숙명적인 비극성인 것이다.²⁶⁾

<요한詩集>에서 '누혜'가 느끼는 비극은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이 인간하고자 하는 실존적 자각에서 시작된다. 비인간, 부자유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자유를 찾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비극이 따르게 되고 그리하여 '존재 자체가 최악'이라고 인식한 '누혜'는 보다 근원적인 비극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비극성은 독단적이며 선형적 사상의 테두리로 인간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존으로 뛰어 들게 하는 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의의를 주는 어떤 논리적인 우주론 다시 찾기위해서 바쳐야할 미완성의 끊임없는 노력이 비극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요한詩集>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토끼의 우화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26) After would war I there was on official line general consumption.

"Back to Normalcy. Day by day in every way. We are getting better and betten. This produced a literature Which tire lessly out that there was noting what soerer normal about us. The measure of decary in thirty years is in degree of acceptance official myth today from the most obscure back on a proincial newspaper to the ldtiest meraphysicians of the literary quarterlies ; Kenth Rexroth. Criticism and Commeutary the beat generation and the angry young man. p. 351.

일곱가지 무지개색으로 꾸며진 굴 속에 토끼는 이제껏 불행을 모르고 살아왔으나 사춘기를 맞으면서 밖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갑자기 굴 속이 감옥으로 느껴진다. 그때부터 토끼는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온갖 고통 끝에 세상을 내다보는 순간 토끼는 눈이 멀고 만다. 굴속에서만 살아 온 토끼는 햇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토끼가 죽은 자리에 피어난 버섯을 후예들은 '자유의 버섯'이라고 불렀다.²⁷⁾

〈요한詩集〉이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고 쓴 첫 작품이라는 작가의 고백²⁸⁾을 상기하면 토끼의 고통은 실존 인물이 스스로를 깨닫고 행동하는 자의 고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누혜'가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에 목을 매어 자살함은 바로 '토끼의 우화'에서 토끼가 실존적인 자신을 깨닫고 '자유의 버섯'이 되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누혜는 철조망에 목을 매고 죽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모두들 누혜를 누에라고 불렀다. 그래서 포로라는 아직 낮이 설어서 모두가 한가지로 허탈 상태(虛脫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실없는 친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그를 놀려주기도 했다.

「뽕·뽕·뽕잎이 떨어진다. 뽕·뽕·뽕잎이 떨어진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누에는 죽어서 비단을 남긴다. 하하…….」

그는 비단을 남기고 싶어한 것은 아니었다. 봉황새가 되어 봉이 되어 저 푸른 하늘 저 쪽으로 날아가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의용군이 아니고 이북에서부터 쳐 내려온 괴뢰군이었다. 그런데 수용소가 어수선해졌을 때도 적기가(赤旗歌)는 부르려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누워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요한詩集〉—

'누혜'는 끝내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서성이며 '누에'처럼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은 패배를 전제로 한 자유인의 초상을 가슴속에 그린 것이요,²⁹⁾ 이는 처절한 좌절이며 비극이다. 좌절, 절망으로부터 온 것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누혜'는 무엇에 절망했는가? 그것은 사상의 橫暴다. 철조망 안에서 두번째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27) 張龍鶴; 「요한詩集」, 韓國戰後文學全集, 新丘文化社, 1963, p. 16.

28) 上揭書; p. 400.

29) 李御寧; 「敗北의 人間像」, 「新文學 60年代表作選集」V, 正音社, 1968, p. 128.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싸움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는 싸움이였다. 아무리 악하고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적이라 해도 죽음 이상의 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 이상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아픔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앙이다! 죽음에는 生의 重量이 걸려 있다. 그의 죄는 그 生보다 더 클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이란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슬픔도, 기쁨도, 간지러움도, 아픔도, 피도, 땀도, 선도, 악도, 地上의 모든 약속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마지막 위로요, 안식이요, 마지막 용서다.

그런데 거기서는 시체에서 팔다리를 뜯어내고 눈도 뽑고, 귀도, 코도 도려냈다. 아니면 바위를 쳐서 으깨어 버렸다. 계급의 이름으로, 인민의 아픔으로!

그들은 生이 장난감인 줄 안다. 인간을 배추벌레인 줄 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요한詩集〉—

이같은 전쟁의 참상, 특히 이데올로기의 극한적인 대립속에서 ‘누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의 의식속에 빗발치는 내면 세계를 그리기 위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쓰여진 〈요한詩集〉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누혜’가 절망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쉽게 파악된다. 〈요한詩集〉의 주제는 ‘자유’를 예언자 ‘요한’에 비한 데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상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올 참된 구세주 ‘예수’를 위하여 길을 닦고 죽어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³⁰⁾ 그러므로 ‘요한’적인 존재인 ‘누혜’는 죽어야 했던 것이다.

〈血書〉의 ‘奎鴻’, ‘達壽’, ‘俊錫’, ‘昌愛’ 이들도 전쟁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체념을 지니는 類, 숙명의 굴레에 반항하는 類이나 결국은 ‘의미없는 詩 한 首’에 ‘모가지를 덩강 잘라 버릴’ 비극적 인간들인 것이다. 이들의 비극성 속에는 의미가 아닌 현실적 비극이 그대로 잠식해 들어와서 생존의 구체적인 증거마저도 부정해 버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 현실의 비극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誤發彈〉의 ‘宋哲浩’는 6·25전란이 가져다 준 비극이란 비극은 모조리 한 몸에 지닌 듯한 인물이다. 민족 분열의 비극, 암담한 생활……. 그리고 그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이 하나는 부조리한 현실과 결코 야합할 수 없는 그의 양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실한 한 지식인은 그렇게 자의식의 내출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30) 張龍鶴：前揭書，p. 402.

것이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暗射地圖>의 '亨男', '相德', '潤珠'도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다.

金聲翰의 <五分間>에서는 인간과 신이 담판을 짓는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무어란 말인가? 아무 소득도 없다.

그 외에도 <쏘리·김>, <虛構의 終末>의 '나', <몸全體로>의 '主人'등 모두가 비극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다.

소설의 구조는 주인공의 비극적 성격을 방치하여 놓아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극을 연출시키는 비극적 파국과 절망적 상황이 필연적이게 된다.

2) 無氣力한 虛無主義者

삼 년여에 걸쳐 전국토를 휩쓴 6·25전란은 한민족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 6·25전란은 우리 민족을 철저히 객체로 다룬, 피해만을 안겨준 전쟁이었다. 한마디로 한민족에게 돌발적으로 던져진 전쟁이었다. 2차대전후 미·소의 분할 정책에서 나온 남북을 가른 사상 체제의 대립, 아직 남과 북의 자유의식과 자주 국방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6·25전란이 일어났으므로 북에는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받고, 남에는 미군과 U, N군이 참전하였으므로 한반도의 전국토가 전장이 되어 37개월간의 피흘린 전쟁은 그들의 휴전 회담에 의하여 휴전선이 결정되어 3·8선으로 분단선이 그어져 버리므로 한민족은 약소국의 비극적 운명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³¹⁾

그리하여 국토의 폐허화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각 개인들은 生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거나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 현실이 개인에게 혹독한 가해자로서 군림할 때, 각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피해를 입힌 전쟁에 대하여 의혹과 반문의 제기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소용돌이치는 암담한 외부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의식이 치러야 할 내면적 양상의 상처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孫昌涉, 張龍鶴, 李範宣, 徐基源 등의 一運의 作品들이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무기력의 성격이라 불러도 좋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성격은 비극적 성격과 함께 한 인물속에 공존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다.

한국적 인물이 가지는 虛無的 성격은 서구적 <니힐리즘>과는 근본적인 점에서

31) 閔丙台: "6·25의 現代史的 意義", 新東亞, 1970, 6月號, p. 65.

그 체계를 달리한다.³²⁾ 우리의 그것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 구조에서 많은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무력감, 고독감, 상실감, 체념적인 허무성의 구조는 무엇보다 그 근거를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³³⁾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의 의사와 결단에 의해서 결정짓지 못하고 역사적, 객관적 여건에 의해서 다가오는 운명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와 허무성은 사상적인 여과를 거치지 않은 채 우리의 생활현상 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가치 전환을 위한 철저한 부정의 정신으로서 보다는 가치나 이상을 애당초 찾아 볼 수 없다는 무력성에 근거를 둔 채로 어설픈 도피와 침묵 정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 도피의 정신은 정치적 현상이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응결되어 갔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철두철미한 침묵으로만 표현된 허무성도 극한 상태에 달하면 서구적 <니힐리즘>에 못지 않은 과감한 부정의 자세와 반항의지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³⁴⁾

전후의 한국소설의 주인공에도 이 성격이 나타남은 물론이다.

우리는 시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무위, 이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저주합니다. 악과 추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GREY 俱樂部顛末記>의 宣言文 中 一節이다. 역사성(시간)과 행동을 거부해 버린 그들은 '순수의 나라', '영혼의 밀실'에 산다는 자기 기만 — 위기를 직시하지 않기 위한 — 으로 외계에 자신을 폐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安易한 도피'며, '행동의 손발을 갖지 못하고 관조의 창문만을 가진 인간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름지언정 孫昌涉이 쓰고 있는 대개의 인물들이 이 성격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극적 성격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지 박약과도 같은 무기력의 화신, 즉 生의 의욕을 박탈당한 인간군이다. 인간과 인간과의 다리를 놓는 길(방법)을 잊고 있는 그들은 나아가서는 生에 대한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더욱 깊은 증세를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생존해 나가는 현실속에서는 좌절감 — 이에서 유발되는 반항까지도 — 결국 의미없는 행동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32) 鄭昌範: "韓國의 虛無性的 構造", 現代文學, 通卷 68號, 1960.

33) 上揭書: "서구적 니힐리즘이 그 성립요인을 <神의 죽음>에 두고 있지만, 한국적 허무성은 老莊思想, 佛敎 또 그보다 끊임없었던 외침으로 인한 좌절, 수난의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34) 歷史的으로 볼 때 4·19혁명이 좋은 예다.

孫昌涉의 <生活的>에서 무거운 절망과 우울, 공허에 삶을 던지고 누운 '동주'는 세상을 온통 '구더기'가 들끓은 곳으로 보고 '자기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무의를 느낀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든 될대로 되겠지'하고 막연히 '시간의 해결앞에 내어 맡기고 마는', '송장처럼 외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음도 困憊할 대로 困憊해져서', '心身이 걸레 조각처럼 방 한 구석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무의미와 우울이 뽕뽕 소리를 내어 다지는 것처럼 全身을 내려 누르는 것이었다.'

'동주'는 육체적인 피로에 짓눌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허탈상태에 빠져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만다. 동리 사람들이 우물에 똥을 퍼 넣었지 않느냐고 야단 법석을 칠 때도 아무런 대꾸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옆방에 사는 '봉수'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말을 하면 정말 자기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부 관계에 놓여 있는 일본 여자 '춘자'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캐어 물으면 참말 자기가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정신적 결함을 가진 '동주'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일대의 주민들이 온통 '구더기'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만이 '구더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더기'처럼 보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모멸과 驅迫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孫昌涉의 자조적인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행과 부조리에 의한 사회고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아에의 관심 때문에 자조적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모순, 그 모순을 의식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무기력함과 왜소함을 인식하게 된다.

<生活的>의 '동주'는 자기가 먹고 사는 된장 속에 조그만 구더기 새끼들이 수없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 일상사였고, '지린내와 구린내와 땀에 젖어 가지고 파리와 구더기 속에서 살면서도 노상 송장물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우스운 것'이고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해골이 득실거리는 범바위터의 송장물을 길어다 '봉수'나 '춘자'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것은 곧 주위에 대한 불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생리,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주는 낯선 사람에게 대해서는 병적으로 공포를 품어 왔다. 공산 정치하에서 있었을 땐 더 심했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를 뿐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겐 위협을 가할망정 누구나가 이득을 가져와 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낯선 사람도 무섭지 않다. 현재의 동주에게는 아무런 위협이나 불행도 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生活的 > —

이것은 '동주'의 병의식 세계가 외부의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체질화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좋은 증거이다. 인간을 불신하게 된 원인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며 그것은 외부의 강력한 압력에서 온 것이다.

孫昌涉의 자조적 문학은 개인으로서 어떤 논리적인 바탕은 없으면서 자의식을 갖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徐基源의 < 이 성숙한 밤의 포옹 >에서의 탈영병 '나'는 生의 어떤 비극적인 상태에서 허무적인 성격을 익혀버린 인간이다. '완전한 허탈 상태'에 빠져버린 '나'는 이상한 '飢渴'에 허덕이며 엉뚱한 짓만을 저지른다. 그것은 견잡을 수 없는 '慾情'이라든가 살인, 파괴욕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들은 '관능'이라는 탈출구를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관능'은 감각적인 의지 상실의 경지를 순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능'이란 현재의 대상과 이 순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려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원칙에 따라서 삶을 찾는 대신에 삶, 그 자체에서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자유다. 이 자유가 좌절감이나 '의미없는 행동'으로써 생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속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생존이유를 확인해 주는 짧은 순간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존 수단인 행동이 사회와 인간과의 다리를 놓은 始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안개요, 일체의 책임과 '허무한 것'으로 대하고 만다.³⁵⁾

비극적 성격의 인간들이 대개 행동, 반항, 의지적인 데에 반하여 이 허무적 성격을 가진 인간들은 주로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병적인 자의식에 젖어 있는 태도를 취한다.

3) 人間存在의 孤獨

앞에서 말한 성격과 아울러 전후 한국소설에는 이 고독의 성격을 가진 인물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현대 특히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비극적 허무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이 따르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현실)에서 어떤 메꿀 수 없는

35) 朴東奎：“現代小說과 主人公”，「春川教育大學 論文集」，제 2 집，1965.

격리감을 느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또 인간 존재의 자각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요한詩集〉에서 ‘누혜’가 느끼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고독, 〈謀反〉, 〈테러리스트〉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지는 고독감,³⁶⁾ 특히 현대 문명 사회가 인간에게 안겨다 주는 고독감은 20세기의 한 특징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 것이다.

「자, 우리 남과 같이 살아가…….」

「그렇다. 그러나 외롭다.」

「자네는 고독을 경멸해야 한다고 하더니 외롭다는 건 뭐야?」

「나도 외롭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자네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다.」

—〈二一三號 住宅〉—

李係長은 자신이 몹시 고독하다 싶었다.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 같았다.

—〈大衆管理〉—

이런 고독감은 결국 인간에게 불안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자의식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행동’, ‘반항’이라는 능동적 의지거나 ‘도피’라는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鮮于輝의 〈불꽃〉에서 ‘현’이 느끼는 고독감은 과연 어떤 것인가?

외로움, 그것은 못사람들과 떨어져 홀로이 있는 외로움이었다. 섞여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아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이 느낀 고독은 좀 다른 양상의 것이다. 그것은 이념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이 부딪치게 마련인 보다 높은 차원의 긍정적인 고독인 것이다.

인간은 외부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일차적인 유대의 상실로 그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 깊은 의혹과 회의를 품게 됨으로써 무력감과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³⁷⁾

‘현’은 학병 기피 때, 불안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 그 때 ‘현’을 엄습한 불안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불안이며 그것은 ‘거대한 감옥으로 化한 울타리 안에서 뼈에 젖어 든 옥 안의 타부’이며 ‘그것을 범하는 죄인의 불안’, ‘날아 올 간수의 채찍’이며 ‘마련된 옥 안의 옥’으로 인식된다.

36) ‘暴力’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느꼈을 때의 고독감.

37)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pp. 237~238. pp. 255~257 참조.

辛卿得; 「韓國戰後小說研究」, 一志社, 1983, p. 46. 재인용.

4) 敗北와 自己欺瞞

이 부류에 속하는 인물은 몇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즉, 객관 현실이란 그리고 그 속에서 빛어지는 인간 관계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의식(주체의식)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불길한 에이전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³⁸⁾

인간에 있어서 현실 상황이란 회피할 수 없는 숙명적 조건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정신적 낙차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내부 성실성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객관 상황의 질서에서 허위와 가식밖에는 찾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허위와 가식의 공범자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숙명적으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 내용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 내출혈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그 피해 의식이란, 현실을 '부정'한다는 기본 입장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변모를 위한 즐거운 정신적인 힘과 결부되지 않고' 부정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감정의 본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부정이 결코 지속되지 않고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변질되어 버린다.³⁹⁾

첫째, 현실부정이 수반하는 괴로움이 자아의 부정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 — 체념의 상태 — 이 경우에는 비존재가 존재를 무화시키지 않고 존재가 비존재를 무화시킨다.⁴⁰⁾

둘째의 반지성적 태도는 위와는 반대로 무화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애초부터 아예 폐기되고 비존재가 존재에 대한 아무 작용력없이 고립, 응고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이걸 도피라는 상태로 나타나며 이상주의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현실 부정이 수반하는 세 번째의 반지성적인 결과는 부정자의 자기 부정이다. 존재와 비존재 양 쪽을 모두 말살시키는 경우 — 이것은 절망이라는 상태이며 곧 허무주의에 연결되는 것이다.

전후의 한국적 상황 — 무질서한 사회와 정치, 전쟁, 메카니즘 등 — 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어야 했던 인간들, 그들은 결국 상황에서 분리된 에고(ego)라는 폐쇄적인 세계로 스스로 감히며 병적인 자의식 속으로 빠져 들고만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피와 무기력이라는 상태하에 복잡한 양상의 성격을 드러낸다. 즉 그들은 방관자이며 향락주의에 빠져서는 자기 기만을 일삼는다. 또 체념과 자조에 자신을

38)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養雪出版社, 1969, p. 240.

39) 鄭明煥: 「否定과 生成」, 「韓國人の文學思想」, 金鵬九外 5人共著, 一潮閣, 1964, p. 313.

40) 여기서 '存在'란 현실세계, '非存在'란 可能性의 世界, '無化'란 破壞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말긴 나머지 무성격적인 인간이 되어 버리며,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존재에조차도 무의미를 느끼거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전후의 작가들 중 孫昌涉은 누구보다도 이 성격형을 많이 만들어냈다.

血書 쓰듯
血書라도 쓰듯
瞬間을 살고 싶다.

모가지를
이 모가지를
뎡깅 잘라
內容 없는 血書를 쓸까?

—〈血書〉—

‘모가지를 뎡깅 잘라 血書를 쓸’만큼 이 〈血書〉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 ‘우연히 살아가는 인간’인 것이다. 욕설과 야유만이 그들에게는 생존 의미인 것같이 보인다.

또 누이 부부의 매일거리의 부부 싸움을 〈가정스포츠〉정도로 구경하는 〈流失夢〉의 ‘나’는 ‘하늘 옷을 잃어버린 선녀’와 같은 좌절감에 잡혀 있다. 일상 현실에 의 좌절감이 반동으로 그는 더욱 완고한 자의식의 동굴로 칩거하는 것이다. 그는 오만하고 외로운 나르시스이다. 이 오만하고 외로운 나르시스의 눈에 비친 일상 현실은 송충이 우굴거리는 무의미한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生活的〉의 ‘동주’는 ‘송장처럼 外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움직여 보지 못하는 위인’이며, 自己의 存在를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는 결국 ‘어떻게든 될대로 되겠지’하는 체념과 무의욕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未解決의 章〉의 ‘나’ 또한 ‘주위와 나를 어떤 필연성 밑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주위와 자신의 중압감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세계에서 떨어진 ‘異邦人’이며 나의 눈에는 산다는 것이 꼭 ‘군소리’와 같은 것이다.

〈誤發彈〉의 ‘宋哲浩’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지식인이다. 자식과 남편으로서의,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라고 자인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이름 짓는 주인공 ‘宋哲浩’의 비극은 그가 탁류같은 현실 속에 살았고 그런 속에서도 끝내 양심을 버릴 수 없었다는 데 있다.

〈暗射地圖〉의 ‘相德’, ‘亨男’, ‘潤珠’.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피해를 받고 젊은

날의 찬란한 꿈들을 상실해 버린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서로 '共同的 피해자'임을 인식시키며 '아내 共有'라는 지독한 자기 기만과 모멸을 일삼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패배의 인물은 곧 '피해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局外라는 점에 보다 강조를 둔 작품으로서는 <GREY 俱樂部 顯末記>의 '현'을 들 수 있다. 局外된 '현'은 그 반동으로 폐쇄된 밀실로 안이한 도피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후의 많은 주인공들이 패배자로서의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전후 한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상황이 필연적인 한 전형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패배적 성격은 전후의 한국 현실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한 전형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5) 反抗과 挫折

'현실 부정'이라는 기본 입장에서는 '패배의 성격'과 같은 태도이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不條理'⁴¹⁾의 상황을 부정한다는 점에는 같은 입장을 가지면서도 거기에서 출발한 태도 — 행동 — 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양자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의 인간이 현실에서 비극 의식을 느끼긴 했지만 결국은 그 속으로 전락하고만대 비하여 반항적 성격은 그것을 딛고 올라섬으로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부단한 투쟁을 한다는 점일 것이다.

'人生的 부조리를 말하려면 의식은 살아 있어야 한다.'⁴²⁾는 까뮈의 말과 같이 패배의 인간이,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의식조차도 잃어 버린데 비하여 이 반항적 성격은 최소한도 자신의 生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는 허무주의요, 또 하나는 새 가치의 창조이다. 반항적 성격은 단연코 후자의 길을 택한다.

부조리는 절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 절망이 자아와 외부와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말하자면 절망이란 實存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그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⁴³⁾

우리는 인간에게 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입법자가 없으며 그것도 내버려짐 (délaissement)속에서 저 자신에 대하여 결단할 것임을 상기시키는 바이다.⁴⁴⁾ 내

41) 까뮈가 주로 쓰는 말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역설적 방법으로서의 뜻이 있다.

42) 까뮈: "反抗의 人間", 「韓國人과 文學思想」, 宋 穉 <西區人の 反抗과 韓國人の 反抗> p.10.

43) J. P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노오벨文學賞全集」7. 方坤譯, p. 368.

44) 上揭書, p. 377.

버려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存在를 선택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내버려짐은 고뇌를 동반하게 마련이다.⁴⁵⁾

‘내버려짐’의 상태(= 無의 상태 - 絶望)에서 ‘스스로’, ‘결단’(= 意志)하여 ‘선택’(반항적 행동)한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뇌’(= 비극 - 자기 회생)가 따른다.

이렇게 철저한 절망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절망을 극복하는 지성적인 방법이 ‘반항’이라는 형태인 것이다.

‘반항인은 곧 거부인이다.’⁴⁶⁾ 그러나 그 거부는 거부를 위한 거부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반항하는 거부는 반항의 출발점이 존재한다는 ‘긍정’을 의미한다. 즉 ‘긍정을 바탕으로 한 부정’인 것이다.⁴⁷⁾

그러하여 ‘반항’은 개인적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전후 한국의 반항인은 어떻게 절망에 반항하여 어떤 의지를 보여 주었던가를 살펴보자.

…… 그들은 生이 장난감인 줄 안다. 인간을 배추 벌레인 줄 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이렇게 철저한 비극에서 출발한 <요한詩集>의 ‘누혜’는 마침내 ‘존재의 죄악’이라는 인식에 도달했고, 인간이 가진 ‘자유’란 결국 허상에 지나지 못하며 ‘인간은 자유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그는 ‘생을 살리는 길은 오직 자유가 죽는 데에 있다’는 가설에 도달한다.

그 결과도 ‘누혜’가 택하는 길은 ‘하나의 試圖요, 나의 마지막 기대’인 ‘자살’이다. ‘자살’은 그가 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며, 그것은 生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극단적인 거부를 통한 또 하나의 반항이라는 역설적인 의지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뒤에 올 참된 메시아를 위한 제물이었던 것처럼 ‘누혜’의 ‘자살’은 궁극적인 生(자유)을 위한 하나의 변신인 것이다. ‘…… 나만이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외친 <現代의 野>의 ‘玄宇’도 현대라는 상황(이데올로기의 메카니즘)에서 자기의 인간 조건을 의식해야 했고 그 구속에서 자유를 갈망

45) 上揭書, p. 368.

46) 宋 稜: 「韓國人の文學思想」, p. 189.

47) 上揭書, p. 189.

하고 실존으로의 탈출을 기도한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좌절과 단절뿐이다. 결국 ‘현우’가 택하는 길도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반항이다.

전후 한국의 사회, 정치, 전쟁의 메카니즘을 치른 자아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과의 관계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실존주의적 명제를 안겨 주었다.

張龍鶴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의 궁극적 의미를 물으며 개체를 말살하려는 비정적인 집단의 의지 앞에서 죽음으로써 반항한 인간들인 것이다.

죽음으로 반항한 인간의 예는 또 있다. 金聲翰의 <바비도>는 인간이 조작한 권력, 즉 신에의 반항을 회피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양심을 고집하여 끝내 죽음을 택한 자유정신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온갖 인간의 조작, 위선에서 벗어나 인간 양심을 부르짖는 반항 의지의 승리인 것이다.

<證人>의 ‘준’ 또한 권력이 빚어내는 횡포에 반항하는 인간이다.

‘자아의 절망과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情性和 무비판이 태풍처럼 휩쓰는 가운데에’ 미련없이 사표를 써 버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다. ‘무섭지는 않아, 죽음이 ……」라는 그의 독백과도 같이 그에겐 이미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고 ‘다만 생명의 의의를 가져야 하는 조건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虛構의 終末>에서 상이 군인인 ‘나’는 비정적 세계에 항거하고 있다. 그가 화재터에서 라디오를 훔쳐 지이프차를 타고 도주한 것은 비정의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항적 반사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송전주 한 중간에 매달려 있는 ‘나’의 시뉘에이션 — 그것은 위기에 선 현대인의 운명이다. 거기서 ‘나’는 사경속에 몸소 뛰어 들어 온 애인 ‘은애’의 행동을 계기로 하여 허구(假現實)가 종말되고 순간 해명된 실존의 비밀을 의식하게 된다. 그것은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의 특례로서 임종 직전에 영세를 받는’ 그 때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안도감’ 같은 의식이다. 높은 전주 위에서 이루어진 인간과의 결합, 그것은 이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 상태.’ 이 ‘절대적 상태’란 ‘내’가 인간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한마디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에서 ‘나’는 일종의 ‘결의’를 함으로써 반항하는 것이다.

이렇듯 반항적 성격은 대개 자살, 파멸 등의 비극적 파국을 초래한다. 그것은 반항, 그 자체가 자기 희생을 수반하는 까닭이다.

6) 肯定的 휴머니즘

이것도 일종의 반항형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반항적 성격'이 행한 것이 '거부의 반항'이었다면, 이것은 '긍정의 반항'인 것이다. 앞의 성격이 싸르트르, 까뮈적이 라면 이것은 앙드레 말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보다 직접적인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서 인간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구구한 말보다 실제 인물을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가장 좋은 예로서 鮮于燾의 <불꽃>의 主人公을 들 수 있다. 主人公으로서 '현'과 反主人公으로서의 '할아버지'를 한번 대비시켜 보기로 하다.

할아버지	현
(과거의 한국인형).....	(이상적 인간형)
현실 도피	현실 참여
자기 기만	자기 인식
대조·방관	행동
수동적	능동적
비역사성	역사성
체념	반항
안분 지족의 은둔 사상.....	대결의식

위에서 보는 바대로 '현'은 허무 의식과 은둔 사상에 젖어 지내던 과거의 식물적인 한국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생애의 의지를 내세운 인간형이다. 오직 인간적인 행동만이 인간을 위기에서 구한다. '현'은 외친다.

도피할 수가 없도록 절박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코 상황은 바싹 내앞으로 닥아온 것이다.

이미 꽃밭의 시대는 지났다.

살아서 먼저 청부업자를 거부하자. 떠들어야 인생은 더욱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일으켜 주자. 꺼리고 비웃는 데 그치지 말고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자. 나 같은 처지의 아니 나 이상의 경우의 무수한 인간들.

— <불꽃> —

또한 <謀反>에서 테러리스트 '민'은 '자기가 한 행위는 하나의 의의를 갖는 반면 하나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인간적인 결단(謀反)을 한다. '민'은 '평범한 한 인간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인간의 의의를 묻고 살기보

다는 오히려 묻지 않고 사는'길을 택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민'의 휴머니즘이 직접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백 마디의 말보다도 이를테면 단 하나라도 실제의 인간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2. 主人公의 意志

인간은 무엇보다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志向的⁴⁸⁾ 存在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뚜렷한 하늘에 그 무엇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되고자 지향한 그것이며, 되고자 원하는 그것은 아니다.⁴⁹⁾ 그리고 그것의 의식적 행위인 이상 아무리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무상의 행위'⁵⁰⁾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각 성격들은 각기 하나씩의 지향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점은 그 지향 의지로서의 상황 극복이라는 것이다. 물론 작가에 따라 그 지향의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우열로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지향은 또 그대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고 결국은 같은 목표에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작중에서 인물은 그것이 하나의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니며 대개의 경우 작중 인물들은(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하나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전후 한국소설의 주인공들이 내보인 지향 의지를 필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가 그것이다.

이 경우 긍정적 의지란 작품의 파국에서 주인공이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상을 보여 준 것을 말하고, 부정적 의지란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킨다. 물론 이 부정도 긍정을 담기 위한 부정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1) 肯定的 意志

<暗射地圖>에서 '潤珠'는 '생명에의 원시적인 애착과 신앙'을 재인식하고 '구원으로서의 가능성과 암시'를 주고 있다.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고 오직 '내것'이라는

48) Project 보통으로는 '계획', '기도'등의 뜻으로 쓰이나 사르트르는 다분히 어원적 의미 즉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에 가깝게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이전의 마음의 움직임'을 말한다. = 투기, 기도(投企, 企圖).

49) J. P.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p. 368.

50) 아무 의미없는 행위.

것만 확실하게 알 뿐인 생명의 씨를 뱃속에 넣은 채 ‘굿바이! 신사 여러분들이여!’하여 의연이 그 기만의 집을 나가는 ‘潤珠’, 그녀가 갖는 집념은 생에 대한 긍정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乘餘人間〉에서의 ‘서만기’, ‘채익준’ ‘천봉우’는 모두가 한결같이 ‘쓸모없이 남아돌아가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저면에는 생에의 눈물겨운 의욕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채익준’의 비분강개, ‘천봉우’의 짝사랑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준다.

〈未解決의 章〉의 ‘나’ 역시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해결’을 찾아 헤맨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절실히 기다려지는 것’,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의 해결’인 것이다.

〈G. M. C〉의 경우도 비록 ‘똥 같은 자식’에게 패배는 하지만 결코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만 있는게 아니다. 이권의 분쟁이 끝나자 여태까지의 신사복을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직접 똥차를 몰고 나오는 강한 투지와 생명력을 보여준다.

단절된 밀실에서 마침내 가면을 벗고 나와 ‘싸늘한 理智’와 ‘빛나는 태양’을 보는 〈GREY 俱樂部 願末記〉의 ‘현’.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이렇게 외치며 모든 불신의 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다짐하는 〈不信時代〉의 ‘진영’.

어떤 거대한 것보다도 먼저 소박한 인간이라도 사랑해 보겠다는 〈謀反〉의 ‘민’, 또 〈불꽃〉의 ‘현’.

이들은 모두 긍정적 의지로 살아 가겠다는 인간들이다.

2) 否定的 意志

인간이란 파괴(無化)를 실현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⁵¹⁾

주어진 바 대상을 무화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지성은 이상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현실의 부정이란 반드시 미래에 있어서 투영된 긍정의 광명하에 이루어지고 가능성의 세계란 실현되지 않을 존재의 입장에서 현재의 존재를 침해하는 세계이다.⁵²⁾ 즉 현실을 무화·파괴함으로써 가능성의 세계로 지향하는 데 여기에 ‘부정’이란 방법이 쓰여지는 것이다. 철저한 현실부정(→절망)은 그 자체에 보다 높은 세계로의 강력한 긍정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의지는 철저한 비극의식을 가진 인간에게서 잘 나타난다.

51) J. P. Sartre, “존재와 무”, 鄭明煥 〈否定과 生成〉, p. 5.

52) 上揭書, p. 6.

〈요한詩集〉의 '누혜'는 '하나의 시도요, 마지막 기대'인 자살을 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하고 '가능성의 세계'로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할 수 없이 비극적인 현실속에서 결국은 최대의 좌절인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하고만 〈誤發彈〉의 '宋哲浩'의 절망 또한 완전히 현실 부정이다. 그러나 그 절망이 철저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어떤 긍정적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뒷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철호를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다.
… 무언가 해야할 일이 많이 생긴 것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誤發彈〉—

현실에 반항하고 송진주 위에 올라 간 〈虛構의 終末〉의 '나'. 천애 고도의 눈속에서 자기의 '잔해'를 끌어 안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고마는 〈殘骸〉의 '김중위'.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속에 내던져진 인간이며, 거기에 철저한 부정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 의지를 가진 인간들 중에 그 의지가 역설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일련의 인물들이 있다.

현실에서 패배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투를 가르치는 〈몸 全體로〉.

현대 문명 사회에서 소외된 한 지식인이 저지르는 회극적인 이야기 〈二一三號 住宅〉등이 그 예이다.

IV. 戰後 韓國小說의 小說史的 意義

한국 소설사에서 발견되는 주된 흐름은 한국적인 것이다. 한국인은 누구나 구름 발 아래, 산간 속에, 산림 속에 초가를 지으려는 貧道의 낙원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吳永壽의 공동 사회이며, 그들의 사상은 巫覡의 秘敎精神이다. 속세를 초탈한 신비주의가 토속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한국적인 것의 개념 규정이라면 여기에 한과 哀歌를 첨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정서적 공감대와 멋과 미학이 성립된다. 한국 문학은 이러한 특수한 정신과 이념의 역사다. 전후소설에는 작가가 입은 수많은 정신적 상흔 때문에 또는 그 외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가가 창조한 주인공들은 정적주의와 허무주의에 침몰하게 된다.

이 낙원으로 회귀하려는 '願'이 바로 본능이고 이 '願'이 자아에 의해서 억압 받을 때 怨恨은 강화된다. 이 경우 '怨'은 공격력을 수반함으로써 파괴적인 것이 되고 '恨'은 카타르시스를 거침으로써 투사·동일시 또는 승화가 가능해진다.

전후 한국 작가들은 전쟁으로 상실한 낙원과 전쟁에서 입은 외상 때문에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하여 당시의 전후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후 한국소설은,

첫째, 인간의 외부 묘사에 열중하던 작가의 눈이 내부세계로 돌려져 전대의 리얼리즘 경향에서 심리주의 경향으로 전환되어 인간 탐구의 심리주의 소설을 완성하였다.

둘째, 인간의 의식, 또는 불행한 현대 의식을 그림에 있어 객관적이 아니라 작자 자신이 주관적인 의식의 세계를 추구한 '의식의 흐름'의 수법이 試用되었다.

셋째, 신세대로 불리워진 당시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당시의 전후 상황이 작품 속에서 그 주인공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 반항 의식, 좌절감, 고독감, 폐허 의식, 허무 의식 등 6·25이전 작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에 대한 절대적 절박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넷째, 그 수법면에서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품세계로서의 우화, 신화, 전설의 형식을 빌리고 용어에서도 자연 직유, 암유, 역설 등의 언어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작품에 나타난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분단 의식에서 출발하여, 反戰의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세대 작가가 표현하고자 시도한 새로운 세계로의 갈망과 구원의

가능성 모색은 전후의 혼란한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위한 노력으로, 1960년대 작가에 계승되어 발전하였던 사실에서 1950년대 전후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후 한국소설은 한국 소설사에 있어 새 장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후문학은 그 높이와 깊이가 높고 뛰어나다. 특히 전후소설은 한국 소설사에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도를 보여준다. <불꽃>은 한민족의 수난의 50년을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다. <證人>은 한 지식청년의 굳센 의지의 기록이다. <꺼베탄·리>는 짓밟히는 수난사에서 存命하려는 잡초적인 삶의 연속체다. 吳尙源의 소설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시대를 경련하는 행동 인간의 모습이 고 金聲翰의 소설은 악의 현실에 던진 지적 풍자력이다.

崔仁勳·張龍鶴·孫昌涉의 소설은 병상일지와도 같다. 그것은 한국인의 외상의 심층을 도려내 보여 준다. 그들의 상처는 극복되거나 치유될 방법을 잃은 것이다.

17·8세기 실학기 문학이 제 1의 문예부흥기라면, 전후문학은 제 2의 문예부흥기에 해당된다. 준엄한 작가 정신과 칼 끝 같은 시대정신이 새로운 전후문학을 창조했고, 그것은 한국문학에 새로운 수혈을 함으로써 전후소설은 새로운 피돌림이 가능하였다.



V. 結 語

以上에서 전쟁과 문학과 의 관계를 구조내에서 전후 한국소설이 갖는 일반적 양상과 주인공의 성격, 그들이 지향한 의지를 분석해 보았다. 신세대 작가들로 통칭되는 전후 한국소설의 작가군은 6·25전란의 참담한 폐허 속에서 생의 의미를 천착하고 자신의 분신인 작품속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향했던 바를 표현하고 있다.

전후 한국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몇 가지의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격과 그들의 지향한 의지를 총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란 이전 작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에 대한 절대적 절박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의 압박에서 허덕이는 한 가련한 인간군이 바로 그것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에 베게 된 감각적이며, 숙명적인 비극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요한詩集>의 '누혜'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실존적 자각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비극이며, <生活的>의 주인공, '奎鴻', '達壽', '俊錫', '昌愛'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체념을 하고 생존의 구체적 증거마저도 부정해버리는 현실의 비극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3년여에 걸친 6·25전란은 한민족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각 개인들은 생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거나 파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쟁에 대하여 회의와 반문의 제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 허무적 성격이 나타난다. 孫昌涉, 張龍鶴, 李範宣, 徐基源 등의 일련의 작품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비극적 허무적 성격과 아울러 전후 한국소설에는 고독의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은 흔히 볼 수 있다. 현대의 극한 상황하에서 인간의 비극적 허무적 태도를 견지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독감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현대 문명사회가 인간에게 안겨다 주는 고독감은 20세기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것이다. <요한詩集>의 '누혜'가 느끼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고독, <불꽃>의 '현'이 느끼는 이념적이고 의지적인 보다 높은 차원의 긍정적인 고독을 보여주는 것 등이 그것이다.

네째, 전후의 많은 주인공들은 패배자로서의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전후의 암담한 현실에서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상황이 필연적인 한

전형으로 전후의 한국 현실에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한 전형적인 성격이라 하겠다. 孫昌涉의 〈生活的〉의 '동주', 〈血書〉의 주인공들, 〈流失夢〉의 '나', 〈誤發彈〉의 '宋哲浩'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다섯째, 전후의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절망을 극복하는 지성적인 방법이 '반항'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반항'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이기적이며 동시에 이타적 특징을 지닌다는 말이다. 철저한 비극에서 출발한 〈요한詩集〉의 '누혜'의 '자살', 〈現代의 野〉의 '현우'의 '반항(자살)', 張龍鶴 소설의 주인공들이 죽음을 앞에 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의 궁극적 의미를 물으며 개체를 말살하려는 비정적인 집단 앞에서 죽음으로써 반항한 인간들이다. 인간적 양심을 고집하여 죽음을 택한 金賢翰의 〈바비도〉, 권력이 빚어내는 횡포에 반항한 〈證人〉의 '준' 등은 반항적 성격의 대표적 주인공들인 것이다.

여섯째, 반항적 성격이 '거부의 반항'이라면 휴머니즘 행동의 성격은 '긍정적 반항'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보다 직접적인, 긍정적인 행동으로서 인간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불꽃〉의 '현', 〈謀反〉의 '민' 등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휴머니즘의 직접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작중에서 인물은 그것이 하나의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니며 대개의 경우 작중인물들은 하나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주인공들이 내보인 의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가 그것이다.

긍정적 의지란 작품의 파국에서 주인공이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상을 보여 준 것을 말하고, 부정적 의지란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킨다. 물론 이 부정도 긍정을 담기 위한 부정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후 한국소설은 분단 의식에서 출발하여 反戰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세대 작가가 표현하고자 시도한 새로운 세계로의 갈망과 구원의 가능성 모색은 전후의 혼란한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위한 노력으로, 1960년대 작가에 계승되어 발전하였던 사실에서 1950년대 전후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학연구에 있어서 모든 작품을 섭렵하고 난 후에야 이론의 정립이나 공통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고에서 소설을 단편에 국한시킴으로써 장르적 개념으로서의 소설(Novel, Roman)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參 考 文 獻

1. 作品集

- 金聲翰作品集, <五分間>, 乙酉文化社, 1959.
世界戰後問題作品集〔I〕, 新丘文化社, 1964.
韓國短篇文學全集〔V〕, 白水社, 1965.
現代韓國文學全集 2, 3, 4, 5, 6, 7, 8, 12, 14卷, 新丘文化社, 1965.
新文學60年代表作全集〔5〕〈評論篇〉, 正音社, 1968.
노오벨文學賞全集 7 싸르트르篇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新丘文化社,
1966.

2. 著 書

- 具仲書; 「分斷時代의 文學」, 전예원, 1981.
金鵬九外·5인; 「韓國人的 文學思想」, 一潮閣, 1964.
金炳翼; 「韓國文壇史」, 一志社, 1983.
金相善; 「新世代作家論」, 日新社, 1964.
金允植; 「韓國文學의 理論」, 一志社, 1974.
朴榮滄外; 「小說作法」, 文明社, 1969.
白 鐵; 「文學概論」, 新丘文化社, 1958.
——; 「韓國文學의 理論」, 正音社, 1964.
辛卿得; 「韓國戰後小說研究」, 一志社, 1983.
尹炳魯; 「韓國現代小說의 探究」, 汎支社, 1980.
鄭漢淑; 「現代韓國小說論」, 高麗大學出版部, 1977.
千二斗; 「韓國現代小說論」, 螢雪出版社, 1969.
崔載瑞; 「文學原論」, 春潮社, 1957.
Foster. E. M. “The Aspects of the Novel”, 「小說의 樣相」, 鄭炳祖譯, 新楊社,
1964.
Wellek. R. & Warren. A. “The Theory of literature”, 「文學의 理論」, 白鐵,
金兼喆譯, 新丘文化社, 1963.
Carr. E. H. 「역사란 무엇인가」 吉玄謀譯, 探求堂, 1963.

3. 論 文

- 郭鍾元：“小說의 作中人物考”，「藝術論文集」，제 2 집，藝術院，1963.
- 金炳翼：“6·25와 韓國小說의 觀點”季刊 現代社 創刊號，1980.
- 朴東奎：“現代小說과 主人公”，「春川教大論文集」，제 2 집，春川教大，1965.
- ：“戰後 韓國小說研究”，「文化批評」第一卷 第三號 아한학회，1967.
- 閔丙台：“6·25의 現代史的 意義”，新東亞，1970. 6月號.
- 柳光守：“韓國戰後小說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1983.
- 李御寧：“敗北의 人間像”，「新文學代表選集」，正音社，1968.
- 李相涉：“韓國戰後小說의 樣相”，高麗大學校大學院，1976.
- 李洧植：“戰後韓國小說과 時間性的 冒險”，現代文學，186號，1970.
- 李殷執：“韓國戰後小說에 나타난 人間像”，東國大學校大學院，1981.
- 李春熙：“戰後韓國小說의 새 樣相”，中央大學校大學院，1966.
- 鄭昌範：“韓國的 虛無性的 構造”，現代文學 68號，1960.
- 崔英愛：“韓國 戰後小說에 나타난 휴머니즘”，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1974.

4. 雜 誌

- 文學과 知性，通卷 1, 2, 3, 4 卷
- 思想界，1962年 9月號.
- 新東亞，1970年 6月號.
- 月刊文學，通卷 9, 10號.
- 創作과 批評，14, 15卷
- 現代文學 通卷 67, 68, 69, 70, 160, 163, 169, 185, 186, 203號.



텍스트로 인용한 作品

- 張龍鶴；〈요한詩集〉, 〈現代의 野〉, 〈非人誕生〉
朴淵禧；〈證人〉
孫昌涉；〈流失夢〉, 〈剩餘人間〉, 〈血書〉, 〈生活的〉, 〈未解決의 章〉
金聲翰；〈바비도〉, 〈五分間〉, 〈自由人〉, 〈달팽이〉
金光植；〈二一三號 住宅〉, 〈椅子의 風景〉
徐基源；〈暗射地圖〉, 〈이 성숙한 밤의 포옹〉
鮮于輝；〈불꽃〉, 〈테러리스트〉, 〈挑戰〉
宋炳洙；〈쓰리·킴〉, 〈殘骸〉
吳尙源；〈謀反〉, 〈龜裂〉
柳周鉉；〈虛構의 終末〉, 〈張氏一家〉
全光鏞；〈G. M. C〉
李範宣；〈誤發彈〉, 〈몸 全體로〉
崔仁勳；〈GREY 俱樂部 顛末記〉
李浩哲；〈破裂口〉
金東立；〈大衆管理〉



Summary

The Study on Heroes in Korean Post-war Novels (Laying Stress on Their Character and Will)

Kim Chang-Gun

I searched in this thesis how the Korean post-war novels reflected the tragedy of the fratricidal war and the confusion after the war, and how they formed the esprit of creative characters as ideal human beings.

- 1) This manuscript covered the novels written from 1953 to 1958 as the object of investigation.
- 2) Several volumes of controversial novels, written by the new generation novelists who take interests in the actual circumstances at that time, are selected at random from each novelist.
- 3) The world of post-war novels was created only by the new generation novelists not by the new and the old generation novelists together.
-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roes in post-war novels can be classified into tragic, nihilistic, and solitary features.
- 5) The heroes are the highly educated intellectuals in their social standing.
- 6) The heroes can be classified into outsiders, recalcitrants, and humanists.
- 7) The typical works which represent outsiders are "Hyul-So (Written in Blood)", "Saeng-whal-Jug(Existence)", and "MiHaeGyul-eu Jang(The Unsolved Field)" written by Son Chang-Sub, and "O-Bal-Tan(A Bullet Fired by Accident)" written by Lee Bum-Sun, etc.
- 8) The typical works which represent recalcitrants are "Babido" written by Kim Sung-Han and "Hyun-Dae-eu Ya(The Modern Field)" written by Chang Yong-Hark, etc.
- 9) The typical works which represent humanists are "Bul-GGot(The Flame)"

written by Sun Woo-Whi and “Mo-Ban(The Rebellion)” written by Oh Sang
-Won, etc.

- 10) The characters are of value because they aim at some ideal and they generally have each oriented will.
- 11) The present writer divided these wills into affirmative ones and negative ones.
- 12) We can fi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post-war novels in that they were succeeded to the sixties' novelists and developed through their endeavor to get out of the confused senses after the Korean War and to create fresh future.
- 13) The research on post-war literature should be reexamined under the Circumstances Koeran and it requires further studies.

